

김지하 시의 陰陽원리와 ‘치유’의 문제*

정 효 구**

차 례

- | | |
|-----------------|-----------------------|
| I. 서론 | 4. ‘차이’의 생성적 세계관 |
| II. 치유의 원리와 세계관 | 5. 이태극과 삼태극의 상응론적 세계관 |
| 1.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 | |
| 2. 다원적 일원론의 세계관 | III. 결어 |
| 3. 역설적 항상성의 세계관 | |

I. 서론

이 글은 1980년 전후, 그러니까 김지하가 감옥에서 ‘생명’을 발견한 이후에 쓰여진 시와 시정신의 출발 지점이자 도달 지점이 ‘치유(healing)’의 문제에 있으며, 그 ‘치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의 시적, 정신적 원리와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음양론에 의거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지하의 세계인식과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6).

** 충북대 국문과 교수

극복 원리 및 방법이 그의 시작 활동 속에서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점에서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

김지하는 1969년 『시인』지를 통하여 등단한 이래, 첫 시집 『황토』를 출간하고 이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애린1, 2』 『검은 산 하얀 방』 『이 가문 날의 비구름』 『별발을 우러르며』 『중심의 괴로움』 『화개』 『은둔과 유목』 『새벽강』 『비단길』 등의 시집 혹은 시선집을 출간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시집과 시선집 가운데서 그가 ‘생명’을 발견한 이후에 출간된 시집, 그러니까 시집 『애린1, 2』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집들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시인을 포함한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¹⁾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하여 시인 자신을 포함한 세계 전체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 생명이 지닌 근본적인 원리와 작동방식을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른 치유의 실천이 이 땅에서 진지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하가 그의 시에서 이처럼 ‘치유’의 문제에 긴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하여 투신에 가까운 헌신을 하는 까닭은, 시인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와 우리들의 현실세계가 ‘질병’ 혹은 ‘불건강’의 상태에 있고, 그 정도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아를 포함한 세계 전체에 대한 한 개인의 판단이나 진단은, 그것의 진위 혹은 설득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밀고 가는 추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김지하의 세계 진단과 판단은 그의 시

1) 김지하의 시집, 산문집, 강연집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강조되어 등장하는 3개의 열쇠말이 ‘생명’, ‘치유’, ‘우주’이다. 그런데 이런 열쇠말은 우선 시인 자신의 구체적인 몸이 지닌 내외적 질병을 치유해야 할 절박성에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점차 더 넓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질병 진단과 치유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김지하는 죽음 콤플렉스 혹은 죽임 콤플렉스를 강하게 지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들의 문제를 그의 시에서 집착하듯 다루고 있다.

적, 정신적 활동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김지하의 이와 같은 세계 진단과 판단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그의 진단과 판단에 주목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진단 및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치유의 원리 및 방법, 그리고 그 극복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닌 의미와 의의를 다각도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유'는 '질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질병'의 개념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질병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치유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다양해진다.

일반적으로 의철학에 의하면 치유가 이루어져 '건강'하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는 생물학적 신체가 그 구조에 합당한 생물학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생물의학의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이때 인간은 'human body'로 이해되고, 생물학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건강의 지표이다. 둘째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로 대표되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함께 이룬 상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의 설명이다. 여기서 인간은 'human being'으로 이해되며, 다원적 안녕의 상태가 강조된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어떤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를 건강의 고정된 모습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²⁾

위의 두 가지 견해 이외에, 셋째로 건강은 고정된 이상적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변화의 과정이며, 따라서 완벽한 건강이란 존재하지 않고, 건강은 질병을 포함한 삶에의 질적 전환 과정이라는 입장이 있다. 여기서 인간은 'human spirit'으로 이해되고, 초월적이며 생성적인 건강이 강조된다.³⁾

2) 이 단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신익, 『동과 서, 전통과 현대의 눈으로 본 몸의 역사 몸의 문화』(서울: 휴머니스트, 2007), 131~135쪽.

전세일 외 3인 엮음,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서울: 창작과비평사, 2007), 16쪽.

3) 이 단락의 내용은 위의 주석 2)의 강신익의 책 가운데서 133~135쪽을 참조하기

김지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인간들은 위의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질병'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들 모두를 고려한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치유'를 성취해야 하는데, 그 치유는 자연적인 생로병사로서의 죽음이 아닌 인위적인 '죽임'의 실상을 생명의 심층적 원리에 입각하여 탐구하고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의 건강의 개념은 위의 첫 번째 경우에서 점차 두 번째를 거쳐 마지막인 세 번째의 경우로 옮겨오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는 종합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지하는 자신과 세계의 치유를 위하여 그 원리와 극복 방식을 그만의 정신적, 사상적 차원에서 모색해 왔으며, 그것의 실천방식을 탐구해왔다. 이런 모색과 탐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⁴⁾

김지하에게 생명체로서의 인간 존재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 역시 그가 생명체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 문명, 자연, 지구, 우주의 건강 개념의 환유이다.⁵⁾ 김지하는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 전체, 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문명,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연, 그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구, 그들이 속해 있으면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우주를 모두 인간 존재와 같은 '생명체'로 인식하고 생명체의 환유인 인간 존재의 치유 방식과 같은 원리로 이들의 치유를 탐구하며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건강의 실현은 그 출발지점이 생명이고 도착지점이 평화이다. 그는 이 사실을 그의 시 <토란잎>에서 "시쓰기는 생명에서 출발하고/ 평화에서 도착한다"고⁶⁾ 말하였다. 그리

바란다.

- 4) 주지하다시피 김지하의 이와 같은 사상 탐구와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동학사상, 증산교 사상, 『천부경』의 사상, 易사상, 율려의 사상, 태극사상, 기철학, 국선도의 사상, 선불교 사상, 신과학 사상, 들뢰즈의 해체주의 사상 등이 있다.
- 5) 앞에서 건강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김지하의 건강 개념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좀더 좁혀서 말한다면 그의 건강개념은 그의 책 『생명체와 평화의 길』의 제목이 상징하는, 이른바 생명의 인식과 평화의 성취에 있다. 이때의 평화의 성취란 생명체로서의 세계가 이루어내는 음양의 역동적 균형이다.

고 그는 자신의 강연 모음집 제목으로 『생명과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인 바 있으며, 사단법인 '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질병상태에 있는 자아, 인간, 사회, 문명, 자연, 지구 등을 치유하기 위하여 어떤 치유의 원리와 방식을 탐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여기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온 김지하의 시에 대한 연구 가운데 '치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시키며 이 점을 논의한 경우는 없다. 물론 그의 시를 생태시의 견지에서 파악할 때, 그리고 생명사상의 측면에서 논의할 때 치유의 문제는 스치면서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이다.

또한 그의 시에 나타난 치유의 문제를 음양론적 관점에서 사유한 것도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홍용희가, 김지하의 시뿐만 아니라 문학 전체의 전개과정을 음양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본 것은 '치유'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문학과 정신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⁷⁾

II. 치유의 원리와 세계관

1.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

김지하의 시에서, 치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인지하고 논의하여야 할 사항은 그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 일체를 '생명' 혹은 '생명체'로

6) 김지하, 『새벽강』(서울 : 시학, 2006), 81쪽.

7) 홍용희, 『김지하 문학 연구』(서울 : 시와시학사, 1999).

인식하고 전제한다는 사실이다. 서론에서도 잠시 밝혔지만, 어떤 대상이나 세계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전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인식과 전제의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해석과 논의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론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지하가 시인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 세포에서부터 심지어는 무기물까지도 생명으로 인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만들어내는 극미의 세계에서 극대의 세계에 이르기까지를, 일체 생명으로 인식하고 전제한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인식과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김지하의 세계관을 생명적 세계관이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시인 자신도, 연구자들도 지적한 사실이다. 이런 생명적 세계관은 그로 하여금 항상 세계를 생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대하고, 다루고, 치유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김지하의 시를 보기로 한다.

사람의/ 몸은/ 4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다

세포 안에서는/ 매초마다/ 수억 차례의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몸은/ 정신을 창조했다/ 몸이 곧 뇌수

아아

- <꽃>의 부분⁸⁾

위 시에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40조개의 세포,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40조개의 세포를 산술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그러나 여기서 40조개의 세포는 우주 삼라만상을

8) 김지하, 『유목과 은둔』(서울: 창비, 2004), 38쪽.

9) 실제로는 60조개라고 한다. 김지하가 착각을 한 듯하다.

상징하는 은유적이며 환유적인 표현이라고 확대해석해 볼 수도 있다. 결국 이 우주라는 엄청난 세계와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만물과 만상은 그 크기나 형태와 관계없이 다 생명으로서 인간의 몸이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처럼 생명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위의 시를 보면 생명의 다른 이름인 몸과 그 속의 세포 하나하나는 매 초마다 '수억 차례'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몸도, 세포도 결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생명적 존재로서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초시간과 초공간 속에서 '수억 차례'라는 숫자가 의미하듯 초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생명이다. 그리고 위 시를 보면 정신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생명운동의 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단순한 생리적 기능을 하는 생물로서의 유기체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지하에게 생명은 이와 같은 유기체에서 그치지 않고 '영성'을 지닌 신령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런 생명의 영적 기운은 앞의 시에 나타난 생명의 초시간성, 초공간성, 초활동성 등을 통하여 그 일단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런 기운을 지닌 생명은 김지하에게 유기체의 생물학적 생명성을 넘어선 영적이자, 우주적이고, 신령한 존재이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그의 시에서 전하고 있다.

1) 내 목숨은 / 아득타/ 별로부터 오셨으니

내 목숨은/ 가까이/ 흙으로부터 풀 나무 벌레와 새들 물고기들
내 이웃들로부터 오셨으니

죽고 싶어도 / 죽기 어려운 것

우주가 날 이끌고 있어/ 튕기고 이끌고 또 튕기고

살고 또 살아 / 갇아야 하리니/ 이 은혜를 갇아야
- <되먹임>의 부분¹⁰⁾

2) 우주는/ 신의 몸

네 죄는 / 삼라만상을/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을 넘어 차라리/ 이제 미물조차 공경하므로

용서받으라/ 또한/ 축복을!

- <축복>의 전문¹¹⁾

인용시 1)에서 시인은 한 인간의 목숨이 수직선상으로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로부터, 수평선상으로는 이웃의 무한한 생명들로부터 온 것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적 존재의 탄생과 그 삶은 단절된 개체와 원자들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창조해낸 상호 유기적이며 영성적인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을 포함한 생명 전체는 그 탄생과 삶의 전 과정은 물론 그 죽음조차도 소멸로 단절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전 우주적 삶을 무한과 무변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는 시사한다. 여기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모두는 대상으로서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자발성과 상호성에 의한 우주성, 영성 등을 내재시킨 중심적 존재가 된다.

인용시 2)에서 시인은 이런 점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드러낸다. 그것을 우리는 첫 연의 “우주는/ 신의 몸”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다. 우주 삼라만상이 이와 같이 신성을 지닌, 신의 몸과 등가라고 김지하는 말하는 것이다. 시인은 이런 생명의 영성과 신성성을 절감하면

10) 김지하, 『花開』(서울 : 실천문학사, 2002), 87쪽.

11) 위의 책, 90쪽.

서, 이로부터 더 나아가 그런 영적 생명체로서의 삼라만상이야말로 사랑을 넘어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위 시에서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인식과 태도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들이 용서와 축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주 삼라만상을 생명으로, 그 생명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김지하의 시에서 그가 세계의 '치유'를 향하여 내딛는 대전제이자 첫 걸음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여 그가 문제적으로 파악한 이른바 근대문명사와 정신사를 지배한 물리적, 기계적 세계관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는 제1단계의 일이다. 그는 진단하기를, 세계를 '物の 이치'와 '기계의 이치'로만 파악하고 작동시키는 근대적 사유와 삶이 이 땅에 불건전한 '질병'의 상태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들의 이치 대신 앞으로 '생명의 이치'와 '영성의 이치'가 발견되고 회복되며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하의 시뿐만 아니라 산문을 보면 그에게 생명의 발견은 거의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며 자생적이었다.¹²⁾ 그것은 그가 최초로 생명에 눈을 뜬 감옥에서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생명의 발견은, 단지 생명 그 자체의 발견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에 깃든 신성성과 영성을 발견하는 데까지 확대되고 심화되었다. 이런 그를 만드는 데 동학의 사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동학의 '侍天主' 사상은 그에게, 첫째, 만물은 무궁한 우주생명이 살아있는 自尊의 존재이며, 둘째, 그 근본에 無始無終의 우주생명이 살아있는 신령의 존재이고, 셋째, 무한으로 연결된 시공 속에서 죽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영생'의 존재임을 깨우치게 하였다.¹³⁾ 그의 이런 영성적 생명관은 이후 신과학 사상이라는 과학적 담론에 의하여 더욱 확고한 실증적 근거를 덧입는다.

그렇다면 김지하의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은 어떤 점에서 음양오행론

12) 김지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서울 : 동광출판사, 1991), 13~17쪽.

13) 위의 책, 36~37쪽.

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음양오행론적 관점은 우주 삼라만상의 사계인 生長과 收斂이 모두 음양의 다른 말인, 달과 태양, 그리고 오행의 다른 말인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등, 우주의 별들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음양오행은 우주적인 세계의 표상으로서 그들의 작용은 단절된 구성소인 이른바 ‘物’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연속된 흐름인 ‘行’으로서의 운행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계적인 물체가 아니라 생명적이고 영적인 움직임이며 작용이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과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김지하의 생명에 대한 영적, 우주적 인식은 이런 음양오행론의 생명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깊이 맥을 대고 있다.¹⁴⁾

둘째, 그가 생명의 영성에 관해 말하면서 강조하는 영성은 우주성이라고 바꾸어 표현해도 된다. 그런데 사실 이 우주성 혹은 영성을 한 마디로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것은 우주가 빚어내는 神靈한 어떤 기운인데, 그 기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면서 그 모든 존재 속에 마치 음양오행의 기운처럼 다 들어 있다. 음양오행론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읽혀지고 있는 『주역』의 번역자이자 해설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인환이 이런 신령한 우주적 영성을 두고 “주역의 하느님은 이러한 예순 네 가지의 경우의 어느 것이나 향기처럼 스며들어 울바름과 그릇됨을 분별하게 하고 알맞음과 어긋남을 구별하게 한다 ... 합리적인 모든 것을 합리적인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궁극적인 비합리이다”¹⁵⁾라고 말한 것은 이 논의에 힘을 실어준다. 요컨대 영성 혹은 우주성이란 합리를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비합리의 기운이라는 것이다. 김지하의 시에서, 이

14) 동학에서 최제우는 三才論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오행의 버리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며,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천지인을 음양오행의 관점으로 읽어낸 것이다.

15) 김인환 옮김, 『주역』(서울 : 나남출판, 1997), 10쪽.

우주적 영성은 이와 같은 합리의 비합리적 힘과 유사하다.

셋째, 김지하가 영향을 받은 동학의 『동경대전』은 陰陽動靜을 가지고 우주의 無爲而化를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다. 바로 이 無爲而化하는 우주에 含德하는 것이 인간의 몫임을 동학은 주장하고 있거니와, 김지하는 그 합덕의 방식으로 '待天主'에 토대를 둔 영성적 생명인식과 실천행위를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음양오행론이 지닌 삼라만상의 생명성과 우주성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삼고 있는 『동경대전』의 우주와 인간을 합일시키는 무위 및 합덕의 사상은 김지하의 시가 지닌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의 이와 같이 형성된 세계관과 그 속에 담긴 음양의 원리는 그가 세계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사유체계로서 의미를 가진다.

2. 다원적 일원론의 세계관

김지하가 그의 시에서 치유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제시한 위의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에 이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의 '다원론적 일원론의 세계관'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한편으로 세계를 다원론으로 파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일원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함께 통합시키고 있다.

그가 세계를 이처럼 이원적으로, 그러면서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가 다원과 일원, 성장과 수렴, 분화와 통합이라는 생명체의 양면성을 한꺼번에 인식함으로써 그 생명체가 지닌 전모를 온전히 읽고 있기 때문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세계는 다원론만으로, 또는 일원론만으로 단절되어 편협하게 파악되고 운영될 때 '질병'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다원론은 뿌리 없는 혼돈의 발양상태이다. 그런가 하면 일원론은 꽃이 없는 것과 같은 전일성의 미분화 양태이다. 전자가 무

정부 상태의 혼란과 투쟁을 야기한다면, 후자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독재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음양론으로 말한다면 전자는 봄과 여름을 상징하는 生長(목성과 화성)만 있고, 후자는 가을과 겨울을 표상하는 收斂(금성과 수성)만 있는 모습인데, 이들은 전모(토화작용, 중화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구별되어 따로 별개인 채 인지되고 작용할 때,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김지하의 다원론과 일원론의 문제를 담고 있는 그의 시 한 편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흙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피어/ 퍼지려/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 시골 가/ 가 / 비우리라 피우리라.

- <중심의 괴로움>의 전문¹⁶⁾

위 시는 김지하의 시집 『중심의 괴로움』의 시집 제목이면서 작품 제목이다. 그런 만큼 이 시의 의미가 『중심의 괴로움』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위 시에서 시인은 중심인 일원론 혹은 전일성의 실상에 집중하고 있다. 꽃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흙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중심의 힘

16)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서울 : 숲, 1994), 50쪽.

이 절정에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흠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중심의 힘은 한 존재를 통합시키고 중화시키는 일원성의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임계점을 맞이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존재가 꽃이라는 확산의 만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생장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과 같다. 이런 확산의 만개 속에서 일원론적 힘은 다원론적 변모의 양태를 보인다. —이 곧 다가가 된 것이다(一即多). 이 —이 다가가 되는 것을 시인은 위 시에서 '피우는' 것이자, '비우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피우면서 비우는 이 이원성의 만남이야말로 절묘한 생명의 현장이고 순간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원론적 확산의 만개를 보였다고 해서, 그 속의 일원론적 수렴과 중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숨어 있는 또 하나의 힘으로 다원론적 확산의 만개와 상보 및 상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한 생명체의 살아있는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른바 음양의 법칙인 相互待對와 相互轉化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와 산문에서 이런 일원성의 통합적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분화된 통합' '다차원적 통합' '개체적 전일성' '분권적 융합' 등과 같이, 인간 개개인은 물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개체성, 독립성, 분화성이 인정된 위에서의 통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이런 개체성의 인정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틈'이라는 말로 표상된다. 아마도 김지하만큼 '틈'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앞의 인용시 <중심의 괴로움>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퍼지며 피어나려는 꽃은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개체인 생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면서 온전하지 않다. 그것이 온전한 것은 그것 나뉘므로 그도 생명체의 비밀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는 하나의 '프랙탈적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큰 전일적 힘이 그에 작용하고 있으며, 그 무수한 존재들은 서로 무한의 연기 속에 무아적 관계로 얽혀 있

기 때문이다.

김지하의 이와 같은 다원적 일원론은 역시 시집 제목이면서 작품 제목인 ‘유목과 은둔’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유목은 다원적 세계를, 은둔은 일원적 세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양자가 함께 있는 집, 그 집이 시 속에 있는 유목적 은둔, 다시 말해 다원론적 일원론의 세계이다.

김지하의 이런 사유는 그의 시 <道>에서 다음과 같이 응축된 자문자답으로 표출되고 있다.

‘도는 어디에 있는고?’/ ‘내 속에 도사렸다!’

‘언제 풀리는고?’/ ‘밖에 나서면!’

- <道>¹⁷⁾의 부분

여기서 밖에 나서면 풀리는 세계는 다원성을, 안에 도사린 세계는 일원성을 뜻한다. 결국 다원성과 일원성은 한 몸의 양면인 것이며, 이 둘은 서로를 도우면서 이끄는 관계이다. 밖의 다원성과 안의 일원성이 함께 어울린 다원적 일원론의 세계, 그것은 음양의 외양적 발현이 보여주는 다원성과 그것의 이면에 깃들여 있는 태극의 은일적 일원성의 공존양상이다.

다원성의 극한은 無極이다. 무극은 분화의 끝을 향해 달림으로써 이른바 극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극이다. 여기서 모든 존재는 최대한 분화하여 무한의 다원성을 이룩한다. 그러나 이런 다원성은 그것이 일원성의 토대 위에 존재하며, 일원성을 회향하듯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일원성이 망각된 다원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위험하며, 공허하고, 투쟁적이며, 혼란스럽다.

김지하는 그의 시와 산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단절된 투쟁적 분열의 세계, 즉 일원성을 잃은 다원성의 시대로 파악한다. 그가 끝

17) 김지하, 『花開』, 45쪽.

도 없이 반복하여 걱정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분열, 소외, 단절, 고립 등의 '질병' 상태는 바로 일원성을 상실한 다원성의 절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런데 김지하에게 이런 분열, 단절, 소외, 고립, 혼란 등과 같은 '질병'의 상태는 시대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 자신의 실존적, 현실적 문제이다. 그는 감옥체험 이후 정신분열과 백회가 열리는 上氣感으로 인한 질병을 직접 몸으로 앓았다. 그는 木性인 봄과 火性인 여름만 있는 세계처럼 극단적 조열성의 징후를 몸으로 오래, 깊이 앓았던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의 상태는, 외로움을 표상한 그의 시 <새봄 3>, 몸과 마음의 무너짐을 고백한 그의 시 <몸>, 어지럼증과 무류함 등을 표현한 그의 시 <선풍기 근처에서> 등과 같은 작품에서 여실히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질병' 상태는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주' '무궁' '궁궁' '허' '무' 등과 같은 거대한 전일적, 일원적, 연속적 세계를 꿈꾸며, 받아들이고, 만나도록 한다. 아마도 그의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의 대표적 상징인 '우주'일 것이고, 그 우주의 변주태이자 계열체들인 여러 말들일 것이다. 그의 이런 말과 세계에 대한 경도는 바로 그가 다원성과 분열된 세계의 절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일원성의 세계를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런 말들과 세계에 대한 경사를 통하여, 개체를 중시하면서도 그들이 우주에 이르기까지 수평적으로 무한 연속되어 일색의 일원성을 상실하지 않는 일체의 세계를 꿈꾼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개인적인 치유의 절실한 방식이면서 그가 인식한 외부 세계의 치유 방식이었다. 덧붙인다면 그에게 이것은 의도적인 채택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그가 이끌리고 발견한 세계이면서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 원리가 되었다.

김지하의 시를 보면 우선은 그 자신이, 그리고 더불어 외부 세계가 우주 등으로 표상된 일원성과의 일체화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살아난다’. 더 나아가 이런 일체화를 통하여 그는 자연사인 죽음의 문제 까지도 해결한다. 우주가 표상하는 연속적 일원성의 세계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일치시킬 때, 그는 ‘질병’에서도, 자연사라는 생물학적이며 실존적인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¹⁸⁾

1) 무슨/ 소리라도 한번 들려라/ 살포시라도

외롭구나 / 무슨/ 벌레라도 한 마리
나를 물어라/ 너무 외롭구나

생각하고 생각하다/ 생각이 막힌 곳/ 문득 생각하니

내 삶이란 게 간단치 않아/ 온갖 소리 갖은 벌레 다 살아 뿔뿔이
무슨 허허한 우주

쓴 웃음이/ 한번

뒤이어/ 미소가 한번

창밖의 마른 나무에/ 공손히 절 한번

가랑잎 하나/ 무슨 종교처럼 진다.

- <무슨>의 전문¹⁹⁾

2) 저녁 몸속에/ 새파란 별이 뜬다/ 회음부에 뜬다

18) 김지하만큼 그의 시에서 생명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자신의 실존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한 시인도 드물다. 김지하의 사회투쟁의 강렬함과 활달함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런 그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몸을 가진 구체적 생명이었으며,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이전의 이런 몸의 질병이었으며, 또한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생물로서의 쇠약함이었다.

19)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24~25쪽.

기슴 복판에 배꼽에 / 뇌 속에서도 뜬다

내가 타죽은/ 나무가 내 속에 자란다
나무는 죽어서 / 나무 위에/ 조각달로 뜬다

사랑이여/ 탄생의 미묘한 때를/ 알려다오

껍질 깨고 나가리/ 박차고 나가
우주가 되리 / 부활하리.

- <줄탁>의 전문²⁰⁾

이런 내용의 시는 그의 시 전체에서 그 예가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김지하는 우주와 하나 되는 일원성의 장과 그 절실한 생명적 실감을 소중하게, 감격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며 '치유'의 문제를 열어간 것이다.

앞의 인용시 1)을 보면 시인은 현상적으로 단절된 자의 외로움을 깊이 느낀다. 그렇지만 그는 문득 다른 생각으로 옮겨간다. 말하자면 그 자신과 그의 삶이 근원적으로 온갖 만물과 외롭지 않게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의 독자적 우주로서 신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더 이상 분화되고 단절된 개체로서 외로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무한의 일원성 속에 닿아 있음을 놀랍게 실감한다. 그 결과 그는 마른 나무조차도 재발견하여 우주의 식구로 공경하며 절을 하게 되고, 가랑잎 하나도 종교처럼 느끼며 신비의 눈길을 보내게 된다.

인용시 2)를 보면 하늘의 별은 회음부에서 두뇌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몸 전체에 구석구석 떠 있다. 그의 몸은 이런 별과 하나다. 그가 별 속에, 별이 그의 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하나가 되어 순환한다. 그런 일원적인 우주의 신비로운 원리를 보면서, 시인은 때맞춰 껍질을 깨고 '줄탁동시'의 놀라움 속에서 그 자신도 싱싱한 우주가 되

20) 위의 책, 18~19쪽.

고자 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김지하의 시에서 ‘치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가장 강력하게 이끈 것은 이 우주적 일원성의 세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일원성이 다원성을 동반하여 사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가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항하는 방식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원성이 일원성을 잃으면 불안한 단절과 파편적 투쟁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일원성이 다원성을 잃으면 고착된 획일성과 전일성의 횡포를 수반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 위에서 김지하로 하여금 다원적 일원론을 인지하고 역설하며 경험하게 한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무척이나 관심을 보인 『天符經』이다. 천부경의 핵심 사상은 ‘一始無始’과 ‘一終無終’의 일원론과 ‘析三極無盡本’과 ‘一積十鉅無匱化’의 다원론이 하나로 통합된 데 있다. 여기서 일원론을 태극으로 본다면, 다원론은 무극의 표상이다. 그리고 일원론을 陰으로 본다면, 다원론은 陽이다.

결국 김지하는 양의 극단적 분화가 빚어낸 다원성의 절대적 단절과 투쟁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의 치유문제를 음에 해당되는 우주적 일원성의 세계를 인지하고 만남으로써 시인 자신은 물론 이 시대의 인간적, 사회적, 문명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3. 역설적 항상성의 세계관

김지하가 그의 시에서 ‘치유’의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세계이자 원리로 인식한 것은 생명체가 지닌 ‘역설적 항상성의 세계관’이다. 역설적 항상성의 세계란 상호 待對의인 음양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내는 역동적 평형(homeostasis)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 의하면 인간의 몸은 역설적 항상성이 파괴될 때 질병을 앓는다. 그때의 질병이란 말할 것도 없이 단절된 개체로서의 몸의 폐쇄된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몸이 존재하는 주변적, 우주적 현실과의 교

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질병의 상태는 정태적이거나 고착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생성적이다.

이런 한의학의 질병 개념은 베이트슨의 자기조직화 사상에서도, 그런가 하면 내적 평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그리고 존재와 세계의 평형을 지향하는 『주역』을 비롯한 易의 원리 속에서도, 입자와 에너지의 건강한 교호작용을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적 신과학 사상 속에서도, 동학의 '不然其然'의 논리 속에서도, 다 같이 찾아볼 수 있다.

김지하의 산문이나 강연문을 보면, 그는 이런 사상과 주장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며, 그들의 탐구와 내면화를 통해 이들을 '치유'와 관련된 자신의 정신적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김지하의 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거니와 그 예를 찾아가며 논 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사체(秋史體),

그 지예(至藝)에 이르러

오늘

'산은 높고/ 바다는 깊도다(山崇海深)'

거기 마침내/ 옛 옛 옛 조선나라 그 옛날의
선도풍류(仙道風流)에 이르렀으니

어쩌면/ 비 내리는 용강/ 한 발 든
하야안 학체(鶴體)에까지

마침내/ 이르러 수 있었으니/ 그 너머까지도 능히 나아갈 수도,

허나/ 거기서 멈췄으니

추사/ 아/ 가을이 아닌/토용(土用)이란 이름의
따갑고 서늘한/ 그 가을의 역사
- <추사>의 부분21)

위 인용시는 추사의 예술과 정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상당히 긴 분량의 이 작품에서 김지하는 여러 가지 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추사의 예술이 지극한 예술, 곧 ‘至藝의 경지에 도달해 있거니와, 그것은 달리 말해 ‘仙道風流’를 성취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도풍류란 무엇인가. “산은 높고/ 바다는 깊도다(山崇海深)”라는 위 시의 한 구절이 말해주듯이, 그것은 산과 바다, 높이와 깊이가 상징하는 세계의 이원성을 역설적 평형 속에서 포괄적으로 균정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하는 위의 시에서 이런 역설적 평형의 생명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완전성을 찬탄하면서 ‘秋史’라는 이름으로부터 독특한 상상과 철학적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위 인용시의 마지막 연이 그것이다. 김지하는 위 인용시의 마지막 연에서 ‘秋史’란 단순한 가을이 아닌 “토용(土用)이란 이름의/ 따갑고 서늘한/ 그 가을의 역사”라고 해석하고 있다. 음양오행론에서 土用은 土化作用으로서 음양오행의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중화시키고 음양오행의 요소들을 연속선으로 이어주는 힘이다. 이것은 목성과 화성이 가리키는 생장의 세계와, 금성과 수성이 가리키는 수렴의 세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이른바 ‘金火交易’의 힘이기도 하다. 이 힘이 있음으로써 세계의 이원성은 역설적 균형 및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의 현상적 이원성이 음양의 이별로 떨어지지 않고, 균형과 조화, 항상성과 평형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힘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²²⁾

21) 김지하, 『유목과 은둔』, 124~125쪽.

김지하는 위의 시에서 '추사'를 통해 그 '土用'의 힘을 본 것이다. 그것은 추사가 이 토용의 힘을 통하여 온전한 미학적 상태를 성취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한 미학적 상태, 그것은 한 존재의 온전한 치유의 상태에 도달한 것과 같다.

김지하는 또 다른 그의 시 <촛불>에서 역설적 항상성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또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사방이/ 흰 그늘이다/ 타오르는 고요

오르는 물/ 내리는 불

땅과 물의 중력 그대로/ 뿔뿔이 초극하는 조르바의 춤
어젯밤 내내 광장에서 상상에서/ 티브이, 인터넷에서
내 회음 안에서 되풀이되다

오늘 아침엔 / 눈부신 바람 아래/ 구릿꽃 흰나비의 저 피물은 날개로
빛이 뜬다/ 떠오른다/ 단중(단中)으로 서서히
모든 생각과 기억 속의 힘이란 힘은/ 다 함께 솟아오른다
해가 지면 기해(氣海)를 거쳐/ 또다시 니환궁(泥丸宮)의 저 높은
초월의 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 흰 그늘이 고요 속에
사방에서 다시금 타오를 것이다.

회음에서부터

불은 내리고/ 물은 오르리라

- <촛불>의 부분²³⁾

위 시의 핵심은 촛불을 통하여 발견해낸 '흰 그늘'과 '水升火降'의 세

22)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서울 : 대원출판, 2005), 214~263쪽.

23) 김지하, 『유목과 은둔』, 136~137쪽.

계이다. ‘흰 그늘’은 김지하가 특별히 만들어낸 표현으로서, 생명과 삶과 미학의 역설적 항상성 혹은 역설적 균형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경지이다.²⁴⁾ 여기서 흰 그늘은 陰을 포함하고 발효시킨 빛의 세계이며, 양을 포함하고 발효시킨 그늘의 세계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공존하며 어울린 세계이다.

그렇다면 ‘水升火降’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의 시에 있는 “오르는 물/ 내리는 불”, “불은 내리고/ 물은 오르리라”라는 말의 함축된 표현이다. 요컨대 우주, 생명,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수승화강의 상태를 기본원리로 하며 그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양대 요인이 물과 불인데, 불기운이 내리고 물기운이 오를 때 이들의 건강성이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수승화강’에서 불과 물은 물리적 원소이자 그 작용의 상징이기도 하며, 불기운과 물기운이라는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수승화강’은 주역의 ‘地天泰’괘와 같은 뜻이다. ‘지천태’괘는 음인 坤괘가 위로 올라가고, 양인 乾괘가 아래로 내려오는, 수승화강으로 인해 음과 양이 최적의 만남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룬 모습이다.

이와 같은 수승화강의 상태는 ‘흰 그늘’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존재의 역설적 항상성을 구현한 생태적이며 미학적인 건강의 모습이다. 이것은 치유가 이룩된 상태이거나, 앞서 말했듯이 모든 생명체는 이러한 원리의 지배를 받으며 건강한 상태를 생성해 나아간다.

김지하의 시에서, 수승화강의 역설적 항상성이 ‘치유’의 문제와 함께 특별히 강조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시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수승화강이 아닌, ‘水降火升’으로 인하여 백회가 열리는 상기감의 고통을 심각하게 체험하였으며, 정신분열의 질병상태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적 체험에 절실한 토대를 두고, 나아가 이것의 보편성을 생

24) 김지하의 미학강의집 『흰 그늘의 미학을 찾아서』와 자전회고록집인 『흰 그늘의 길 1-3』을 참조하면 이 점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명체에서 읽어낸 그는, 이 원리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그가 속하여 함께 살고 있는 사회, 문명, 지구, 우주 등의 왜곡된 상태를 치유하려 하였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음양사상에서 수승화강이 아닌, 수강화승의 상태 일 때, 한 존재는 상하좌우 혹은 음양이 서로 등을 지고 이별한 것처럼 단절되고 해체된다. 그것은 죽음의 방향을 향하는 일이다. 이런 상태의 궤를 『주역』은 '天地否'괘로 표현한다. 여기서 음양은 서로 있어야 할 자리의 반대 자리에 놓여 있다. 음양이 등을 지고 서로 배반한 것이다.

이 글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김지하의 시에 나타난 역설적 항상성의 원리는 그의 사상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 신과학의 양자역학, 기철학, 동학의 不然其然의 사상, 국선도의 명상과 精氣神의 원리, 『황제내경』을 바탕으로 한 한의학의 인간관 및 생명관 등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물기운과 불기운, 즉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어떻게 긴장 속에서 화해를, 화해 속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역동적 평형 상태를 이룩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김지하는 바로 이런 원리를 그의 시에서 생명의 원리이자 치유의 원리로 이해하고 제시한 것이다.

4. '차이'의 생성적 세계관

본 장의 제목을 보고 누구나 질 들뢰즈 혹은 그와 공저자로 나서기도 한 펠릭스 가타리의 사상을 떠올릴 것이다. 탈구축 및 해체주의 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이들이 차별이 아닌 차이를, 고착이 아닌 생성의 이론을 전개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이 땅에 끼친 영향력은 해체주의 사상가 가운데 누구보다 크다.

김지하는 서양의 근대를 지배한 기계주의적 세계관과 물질주의적 사유체계를 넘어서고자 동양,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전통사상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자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큰 호소력을 지닌 두 가지 서양 사상이 있으니, 그것은 앞에서 몇 번 언급한 신과학의 양자역학적 사상과 바로 질 들뢰즈가 주장하고 전개한 '차이와

생성'의 사상이다.

차이는 수직적이며 획일적인 차별과 동일성을 거부한다. 생성은 '흠 패인 구조'의 반복적, 습관적, 강요된 패턴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차이와 생성의 견지에서 볼 때, 세계는 다양한 차이들의 계열체적 장이며, 이들이 서로 가로질러서 만들어내는 생성의 장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차이와 생성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제시함으로써 치유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질병이란 차이가 아닌 차별이, 생성이 아닌 강요가 지나친 힘을 행사하여 한 생명을 왜곡시킬 때 일어난다. 실제로 과도한 차별은 세계를 분열시키고 마침내 비합리적인 투쟁의 장으로 만든다. 역시 지나친 강요는 세계를 경직시키고 삶을 일방적인 지배구조로 고착시킨다. 이런 경직된 수직적, 획일적 사상과 논리가 인간의 몸과 사회, 그리고 자연 속에 침투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할 때, 이 모든 존재는 생명체로서의 건강성을 상실한다.

김지하의 다음과 같은 시를 보면서 이런 점들을 더 논의해보기로 한다.

- 1) 새벽에/ 저녁 붉은 놀은/ 눈앞에 길고 긴,
돌격하다 돌격하다/ 죽은 자들의/ 시간

그것도 생명은 생명.

생명엔/ 귀천 없으니

다만 국면이 있고/ 국면에 따라 그것은
살림이 되고/ 죽임이 된다

저녁에도 새벽처럼 사는 자/ 그 시간 역시 죽임이다

그러매/ 생명은/ 둥근 것이다.

- <생명>의 부분²⁵⁾

2)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애당초 끝날 여행도 아니다

수없이 끝이 나면서/ 끝이 없는/ 이 길

이/ 매일 매순간이 다른/ 휴식 없는 길

나는 아마도/ 빙하기에 추운 길을 떠났고

나는 그 뒤 죽어서도/ 뜨거운

지구 한복판에서부터 북극을 향했을 것이다

(중략)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서다.

- <절, 그 언저리로부터>의 부분²⁶⁾

우선 인용시 1) 가운데서 “그것도 생명은 생명// 생명엔/ 귀천 없으니”라는 말과, “다만 국면이 있고/ 국면에 따라 그것은/ 살림이 되고/ 죽임이 된다”는 말을 주목해 본다. 이 말들 속의 참뜻은 생명은 차이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은 절대적으로 구분과 차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면에 따라 無常의 유동적인 길을 幻의 방편성처럼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지하는 인용시 1)의 맨 마지막 연을 통하여 “생명은/ 둥근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매우 심각한 말을 내어놓고 있다. 둥근 것 속에서는 차이가 있을 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둥근 것은 시작과 끝이 즉하여 있고, 언제나 결합하며 생성의 길을

25) 김지하, 『새벽강』(서울 : 시학, 2006), 77~78쪽.

26) 위의 책, 75~76쪽.

가는 세계이다.

김지하는 인용시 2)에서 이런 길을 “수없이 끝이 나면서/ 끝이 없는” 길, “매일 매순간이 다른/ 휴식 없는 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생명과 세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이어지는 길의 원환성 속에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차이들의 계열체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절된 차이들이 아니라 무수한 결합과 융합의 ‘가로지름’ 속에서 무한한 생성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계열체들이다. 김지하는 이 엄청난 생성의 길 속에는 고착된 외향의 형태적 공간성보다 보이지 않는 내향의 시간성이 작용하고, 그것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이면의 살아있는 힘이라고 말한다. 김지하는 이와 같은 차이와 생성의 멋진 창조적 현현을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대회의 붉은 악마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응원현장의 물결에서 찾는다. 어찌 보면 이들은 미분화되고 배타적인 차별과 획일성의 상징 같기도 하다. 그러나 김지하는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의 시 <유월개벽>에서 이를 ‘유월개벽’이라는 충격적인 말로 칭하고 있다. 그에게 이것은 새시대의 새문명과 새삶을 예감하게 하는 ‘개벽’의 징조로 읽혔다. 그는 <유월개벽>이라는 시의 일절에서, 이 점을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곳에선/ 그 안쪽의 영들이 생명의
붉은 탈/ 붉고 푸른 우주의 탈들을 쓰고/ 춤추었다

엇박/ 치우/ 태극기.

다 이루었다

- <유월개벽>의 부분²⁷⁾

27) 위의 책, 116~117쪽.

위 시에 따르면,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대회의 ‘붉은 악마의 그날들’은 우주적 靈과 空이 내면화된 자리에서 신명으로 생명의 차이들이 생성의 전변을 일으킨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차별로, 물리적 틀로, 기계적 형태로 이해했던 과거의 문명사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개벽’의 세상이 오고 있다는 예감의 한 장이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인용한 <유월개벽>이라는 시 가운데서, 김지하가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엇박’, ‘치우’, ‘태극기’이다. 이들은 차이와 생성의 세계를 품고 있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이다. 엇박은 陰의 박자와 陽의 박자가 함께 창조해낸 생성의 소리이고, 치우는 소위 ‘도깨비 정신’을 뜻하는 생성의 전설적 인물의 표상이며, 태극기는 음양이 역동적으로 생성의 길을 무한 창조하는 이 땅의 사상적 상징물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김지하의 시에서 ‘생성’의 원환적 논리는 단순한 반복적 원환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음양론에 입각하여 세상의 생명이 빛어내는 모습을 원환성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그 때의 음양론적 원환성은 ‘질적, 창조적, 확산의 개벽’을 이룩하는 이른바 ‘다른 반복’을 창조하는 생성의 힘이다. 김지하가 동학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보면서 ‘동양의 진화론’이라고 찬탄하고, 그로부터 생명의 질적, 창조적 확산의 진화상을 읽어내고 강조한 것은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가 증산교의 개벽론에 얼마간의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개벽’이란 용어에 애착을 갖고 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런 희망적, 낙관적, 생성적 세계관 및 진화론에 관련돼 있다.

요컨대 음양론적 세계관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그의 차이들이 이룩하는 생성적 세계관은 그로 하여금 세계를 역동적, 질적, 확산적 창조가 이룩되는 곳으로 인지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그는 이런 것에 기대어 ‘치유’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5. 이태극과 삼태극의 상응론적 세계관

끝으로 김지하가 그의 시에서 '치유'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모색하고 제시한 태극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태극사상은 이태극과 삼태극 혹은 삼태극과 이태극의 사상을 구별하면서 이 양자를 함께 연결시켜 살펴볼 때 그 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

태극사상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극은 無極, 太極 그리고 皇極이다. 이 세 가지는 天地人 三才와 대응되기도 하며, 양자 역학의 양자, 전자, 중성자와 대응되기도 한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무극과 황극의 드라마인 이태극과 여기에 황극이 작용하는 삼태극이 엇박자처럼 한몸으로 융합된 세계를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 그는 이것을 카오스적 로고스, 줄여서 카오스모스라 부른다.

그에게 이태극이란 태극과 무극이 로고스적 원리에 입각하여 틈 없이 이진법적 작용을 전개해 나아가는 세계이다. 그에 반해 삼태극이란 무극과 태극이라는 우주의 변함없는 로고스적 원리에, 인간도 하나의 중심적인 극으로서의 황극이 되어 이른바 三元之氣의 틈 있는 역동적 로고스, 달리 말해 카오스적 로고스를 창출해내는 세계이다. 이 삼태극 속에는 이태극이 양면적으로 포함된다.

인간이 부재해도 우주는 무심하게 음양작용을 계속한다. 그러나 인간이 없는 우주는 적어도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의 풍경에 불과하다. 인간이 있음으로써 인간사는 물론 우주사가 새로운 차원의 움직임을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다. 본래 황극이란 임금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을 인간적인 견지에서 정한 중심지점이다.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상과 우주의 작용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삼태극의 세계는 물론 그 삼태극 속의 이태극의 작용도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임금은 인간사 전체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인간 개개인의 환유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 개개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이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 개개인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로 어느 곳을 황극의 지점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태극적 삶은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김지하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는 세상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게 그의 후기 '신인간' 운동의 핵심이다. 이 말은 인간 개개인이 어느 곳을 황극의 지점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그 이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황극 설정이 올바르게 않는 한, 인간과 세계의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삼태극적 이태극 혹은 이태극적 삼태극이라는, 소위 카오스적 로고스 혹은 로고스적 카오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 깊은 안개 속에서도/ 시뻘건 불꽃 하나
진리의 불광(佛光)이 밤새워 밤새워/ 타오르지 않는가

우리는/ 가야 한다

세계의 역사/ 그 끝으로/ 새 처음을 열기 위해 그 끝으로

가고/ 또 가야 한다

삼태극(三太極)의 춤의 길/ 태극과 궁궁의 길
원형(原型)의 길/ 그 길에서

아아/ 어느날 문득/ 천지 보리라.

- <서해바다 위에서>의 부분²⁸⁾

28) 김지하, 『유목과 은둔』, 262~263쪽.

해운대 등탑암에서 1999년/ 겨울 낮 허공에 돋은
새 팔괘(八卦)와

옛 병원에서 회음에/ 별 뜨듯 꽃봉오리 열리듯
궁궁(弓弓)을 그리던 열석 자의/ 회음 수련,
- <회음에 별 뜨듯>의 부분²⁹⁾

인용시 1)에서 시인은 ‘진리의 佛光’으로 표상된 우주와 세계의 본성을 믿고, ‘새 처음’이라는 말로 표상된 개벽의 창조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참다운 개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삼태극의 춤의 길’과 ‘태극과 궁궁의 길’이라는 두 표현에서 보듯이, 삼태극적 이태극 혹은 이태극적 삼태극의 세계, 달리 말하여 태극적 궁궁 혹은 궁궁적 태극의 세계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인용시 2)를 보면, 김지하는 이 시에서 ‘새 팔괘’에 대해, 그리고 ‘회음’으로 표상된 존재의 무의식이자 근원인 이른바 단전에 깃들여 생생하게 살아난 ‘궁궁’의 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새 팔괘’란, 그에 따르면 주역의 이분법적 로고스의 팔괘와 다른 동이적 혼돈을 내재시킨 팔괘이다. 그러니까 카오스를 품은, 달리 말해 황극을 품은, 또 다시 말한다면 허공을 품은 삼태극적 팔괘이다. 그리고 ‘궁궁’ 또한 단순한 관념적 태극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그것 역시 한 존재의 살아 숨쉬는 생명의 심층이자 근원인 회음부에 깃들여 피어난, 역동적 궁궁이다.

김지하는 그의 시에서 이런 이태극적 삼태극 혹은 삼태극적 이태극의, 소위 로고스와 카오스가 함께 상응하며 융합된 세계를, 그가 1998년도에 율려학회를 창립하면서 주창한 율려의 사상적 원리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29) 위의 책, 193쪽.

‘아내에게/ 충실하리라’

‘기껏 마누라나?’

‘그렇지 않다’

아내는 민족/ 아내는 마고(麻姑)/ 아내는 지구/ 아내는 그 옛날의
삼신천문(三神天文),

지구 중력권의/ 직녀성(織女星)과/ 태양계의/ 남두육성(南斗六星)과
은하계의/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직렬했던 만 사천년 전
지구와 우주만물의 근원적인 평화에로/ 돌아가는 다물(多勿)

율려(律呂)자리의/ 옛, 옛, 옛/ 새로운 여율(呂律)에
충실하리라/ 아내에게

- <윤동주 앞에서>의 부분³⁰⁾

올려란 우주와 인간 혹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정립하는 원리이자 사상이고 정신이다. 김지하에 따르면 이런 올려의 구현과정에서, 중국에서 비롯된 올려는 인간과 우주 또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황중(陽律이며 乾卦) 중심의 남성중심적, 로고스적 입장에서 설정한 세계이다. 이것은 안정적이나 폐쇄적인 이태극의 사상에 맥을 대고 있다. 그가 보기에 여기엔 카오스가 끼어들기 어렵다. 이런 세계에서 카오스는 오직 부차적이고 주변적이며 종속적이다. 그에 반해 이 땅에는 고려 이전부터 이미 협중(陰律이며 坤卦) 중심으로 인간과 우주 또는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현한 올려의 세계가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카오스와 음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존중한 미래지향적 원리이자 사상이라는 것이다.³¹⁾ 그는 이 세계를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삼태극적 이태극 또는 이태극적

30) 위의 책, 154~155쪽.

31) 김지하, 『올려란 무엇인가』(서울 : 한문화, 1999)를 참조할 것.

삼태극의 역동적 온전성이 실현된다고 본다.

실제로 황종 중심의 올려 세계와 협종 중심의 올려 세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상보적인 자리에서 상응되고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한 자리에 있게 되며, 그것이 상대적인 세계를 보지 않은 채 절대화될 때, 세계는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 마침내 균형을 잃고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보이지 않는 차원의 다른 세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선가 억압되고 숨은 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세계는 황종 중심의 역사이고 문명이었다는 것이 김지하의 판단이다. 그로 인해 인간과 세계는 경직되고, 분열되며, 단절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치유를 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지하는 이런 세계의 치유에 사명을 걸고, 위의 인용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내’가 상징하는 카오스, 즉 협종 중심의 陰律을 재발견하여 시대의 중심자리에 올려놓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남성적, 로고스적 세계가 그동안 과도하게 비대해지고 절대화됨으로써 만들어냈던 질병을 치유하고자 한다. 그때의 그 치유는 이들 양자가 함께 융합됨으로써 음양의 균형을 이룩하는 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지하는 현재의 그 질병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므로 방편상 이른바 올려를 여율이라고 고쳐 불러야 할 만큼 여성적, 카오스적, 역동적 세계의 재발견과 강화 및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김지하는 증산교의 용어와 정신을 차용하여 ‘陰開闢’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명명은 적절성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위의 인용시에서 그가 올려의 자리에 그것의 옛 자리인 여율의 세계를 놓고 그에 무엇보다 충실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사실을 뜻하고 있다.

요컨대 상당기간 방편적으로 강화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는 카오스적, 여성적, 음적 세계를 살려내면서, 이른바 이태극과 삼태극의 중용적 음

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김지하의 견해는 음양 및 음양오행을 정체성이 아닌 동태성으로 파악하면서 그들의 끊임없는 역동적 균형성을 중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그의 음양 및 음양오행관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한 예가 그에게는 앞의 제4장에서도 예로 들고 잠시 논했던, 2002년 서울 월드컵 축구대회의 붉은 악마와 그들의 응원현장이다.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펼치고 접으며
“대- 한민국”을 외친다

우즈벡 젊은이들은 계속계속/ “우우우-----”/ 뽀,

2음보가/ 3음보를 흉내내다/ 혼란에 빠진다.

붉은 악마며 태극전사며 모두 다
파괴력은 없으나/ 혼돈의/ 질서

엇박으로 인해 뛰어나다/ 사막에 핀 난데없는/ 붉은 꽃송이.

- <롤루포비치>의 부분³²⁾

2002년 서울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의 응원가 리듬은 2박과 3박 혹은 2음보와 3음보의 절묘한 융합상이다. 이 가운데 2박과 2음보는 이태극 사상의 현상적 표현인 안정수(2.46...)를 기본으로 삼고, 3박과 3음보는 삼태극 사상의 현실적 표현인 역동수(1.35...)를 기본으로 삼는다. 이런 이태극과 삼태극의 정신 및 그 현실적 표현의 상응적 융합이 2002년 서울월드컵 축구대회에서의 응원가 리듬이라고, 김지하는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지하에게 완전한 세계의 한 성취이자, 미래에 대한 예감이고 조짐이라고 여겨진다.

김지하는 이런 성취이자 징후를 위의 인용시에서 ‘혼돈의/ 질서’가 완

32) 김지하, 『비단길』, 127~129쪽.

벽하게 구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카오스적 코스모스 혹은 코스모스적 카오스가 온전하게 구현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위의 인용시에서 2박과 3박이 빚어내는 ‘엇박’이라고 다른 표현으로도 불렀다. 그리고 이 엇박이 상징하는 바야말로 “사막에 핀 난데없는/ 붉은 꽃송이”처럼 놀랍고, 아름답고, 건강하여, 찬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하가 최근 중앙아시아와 바이칼 그리고 캄차카를 여행하고 쓴 시들의 모음집이 2006년도에 출간된 『비단길』이다. 김지하는 이 시집 속에서 그가 탐구해왔던 카오스적 코스모스 또는 코스모적 카오스라는 이태극과 삼태극의 온전한 융합을 ‘한 사상’이라 부르며 그것을 그가 여행한 지역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의 문제라면 그것은 실증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그가 본 ‘현실적 환상’의 한 양상으로 그의 ‘한 사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준다.

이와 같이, 그가 중앙아시아 일대를 여행하고 흥분하듯 역설한 ‘한 사상’과 그 지역적, 인류사적 의미의 강조는 자칫 국수적이며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고대환원에 불과한, 소박한 복고주의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에 김철은 그의 사상과 태도를 ‘전체주의’라는 측면에서 비판한 바 있다.³³⁾ 그러나 김지하의 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산문과 강연문 등을 읽어보면 그의 ‘한 사상’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비롯한 고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민족주의가 아닌 세계주의의 산물이며, 복고주의가 아니라 復古創新의 미래주의적 산물이다.³⁴⁾ 그가 한 민족을 말하고, 한 사상을 말하고, 한민족의 시원지인 중앙아시아를 말

33) 김철, 「민족-민중문학과 파시즘 - 김지하의 경우」, 유종호 외 31인, 『현대한국문학 100년 - 20세기 한국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민음사, 1999), 485~519쪽. 그런데 김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김지하의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각의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격하게 그를 몰아붙인 점이 다분하다.

34) 위의 김철의 발표문에 대한 구모룡의 비판적 토론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는 김지하가 근대를 어떻게 넘어서고자 하는가를 민중, 민족 담론과 관련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551~558쪽.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들의 배타적 우월성과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담론이 아니라, 인류사 및 인류문명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한 산물로 발견된 것일 뿐이다.

어쨌든 여기서 김지하가 현재를 치유하고 미래를 건강하게 열어가기 위해 탐구한 이태극적 삼태극 혹은 삼태극적 이태극의 상응론과 융합적 세계관은, 음양오행론의 표리적 융합의 드라마와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김지하의 시 속에 드러난 그의 정신의 중요한 문법이자 사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198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의 김지하의 시와 시정신의 출발점이자 도착지점이 인간, 사회, 문명, 지구 등의 '치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그 치유의 구체적인 원리이자 극복 방식으로 삼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음양오행론적 관점에 기본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해왔다.

앞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김지하는 영성적 생명의 세계관, 다원적 일원론의 세계관, 역설적 항상성의 세계관, 차이의 생성적 세계관, 이태극과 삼태극의 상응론적 세계관을 치유의 세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음양오행론적 사유체계에 깊이 닿아 있으며, 서로 강조점이나 초점이 다름으로 인하여 구분된 항목으로 논의할 수는 있어도, 상호 연속되고 보완되며 중첩되는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들은 그가 '無爲而化'하는 우주 속에서 인간들이 그에 '습德'하는 방식으로 '치유'의 문제를 위하여 찾아낸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의 시 속에 내재된 치유의 원리이자 세계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 시를 단순한 ‘藝’나 ‘技’의 차원에 두지 않고, ‘존재의 치유’라는 생명적인 문제로 이끌고 갔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치유를 한 개인이나 인간만의 문제 또는 이들의 육체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문명, 자연, 지구 등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넓은 세계들의 내외적 안녕까지를 문제 삼으면서, 이른바 확산적, 연속적, 종합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치유의 문제를 요소적, 국소적, 분석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데로부터 더 나아가,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 원리를 통찰하는 데서 탐구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道를 통하여 치유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 상당히 포괄적이며, 거시적이고, 전일적인 입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셋째, 세계관에서 현실에 이르는 근대의 제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양,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사를 중심으로 한 고전과 고대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치유의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이 단순한 배타성이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열린 정신 속에서 미래의 ‘개벽’을 꿈꾸며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김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근대주의자라기보다 비판적 근대 속에서 근대극복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그가 근대초극을 모색하는 데는 음양오행론적 사유 체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김지하가 존재와 생명의 치유 문제에서 세계의 반복적 순환이나 부정적 미래관이 아닌, 창조적, 질적, 확산적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동학사상에서 그가 읽어낸 이 관점은 또한 그가 음양오행론을 ‘物이 아닌 ‘行’으로, 기계적 반복이 아닌 생성적 차이의 다른 반복으로 읽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사와 문명사 더 나아가 우주사를 기본적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영성적 인간의 출현을 현재의 문명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의 자세는 이런 인식과 관계가 있다.

다섯째, 환경운동이라는 좁은 의미의 공해추방이나 자연보호 같은 생

태운동이 아닌, 치유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근본적인 생태적 생명운동을 그가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깊다. 그리고 이런 넓은 차원의 생태적 생명운동을 하면서 그 첫 출발을 인간의 마음 곧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점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가 치유의 근본 사상에 주목하는 것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재창조와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암암리에 보여주고자 한 일이다.

끝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김지하의 치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탐구는 인간사와 우주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 속에서 배태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은 미래란 존재와 세계가 참다운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강한 상태가 구현된 세계이다. 그에게 이런 상태의 세계를 꿈꾸게 한 원리는 존재와 세계가 무상의 흐름 속에서 우로보로스의 원처럼 시작과 끝이 항상 맞물려 있는 음양오행의 그 절묘한 생명적 균형작용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인간사와 우주사는, 그리고 김지하가 그토록 넘어서고자 한 근대도, 다 그 나름의 '行'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대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는 점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김지하는 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한다.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근대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도 그만큼 큰 것이다. 우주의 흐름은 '無爲而化'이지만, 황극의 다른 이름인 인간의 노력에 따라 인간사와 우주사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에게 시쓰기란 바로 이런 노력과 직결돼 있다.

신인간, 신문명, 신사회, 신자연을 꿈꾸며 그가 도모하는 이와 같은 '치유의 길'은 그 구체적 현실 속에서의 실천과 방법의 문제는 남아 있어도, 일종의 거대담론과 같은 차원에서 21세기를 열어가는 한 가지 사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음양오행, 치유, 항상성, 영성, 생명

참고문헌

- 강신익, 『몸의 역사 몸의 문화』, 휴머니스트, 2007.
- 김교빈 외, 『기학의 모험 1. 2』, 들녘, 2004.
- 김교빈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아카넷, 2003.
- 김백호 강설, 『천부경』, 심거, 2007.
- 김승호, 『주역원론 1-6』, 성영사, 1999.
- 김철, 『몸의 혁명』, 백산서당, 2005.
- 노병한, 『음양오행사유체계론』, 안암출판사, 2005.
- 동학학회 편, 『동학과 전통사상』, 모시는사람들, 2004.
- 박희병, 『운화와 근대』, 들배개, 2003.
- 양계초, 『음양오행학설연구』, 김홍경 옮김, 신지서원, 1993.
- 이찬 편저, 『태극권경』, 하남출판사, 2003.
- 이현중, 『정역과 삼경』, 충남대출판부, 2005.
- 임동환, 「김지하 시 연구 - 반근대성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0.
- , 「생성의 사유와 무의 시학 : 김지하 시세계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전세일 외 엮음,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 창작과비평사, 2000.
- 전창선·어운형,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세기, 1998.
- 전홍준, 『완전한 몸, 완전한 마음, 완전한 생명』, 에디터, 2006.
- 차옥승, 『한국인의 종교경험 - 증산교/원불교』, 서광사, 2003.
- 최동환 해설, 『참전계경』, 지혜의나무, 2000.
- 최한기, 『氣學』, 손병욱 역주, 통나무, 2004.
-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원출판, 2005.
- 홍용희, 『김지하문학연구』, 시와시학사,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Yin and Yang and Healing Principle of Kim Ji-ha's Poetry

Jeong, Hyo-Goo

The aim of the present thesis is to demonstrate that Kim Ji-ha's poetry written around from the year 1980 onward and his poetic mind start from and end in the main issues of "healing" in humans, societies, civilizations, the earth and so on, clarifying what he suggests as the substantial principle and way of healing is based on his belief in the theory of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ogether with this, what signification those views are believed to hold has been examined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What Kim Ji-ha suggests as the principle and way of healing is a spiritual view of world about life and such world views as of pluralist monism, dynamic homeostasis, becoming of difference and correspondence of the Yitaegeuk and Samtaegeuk. These are all founded on the theory of the Yin and Yang and Five Elements. This is also what Kim Ji-ha has studied from Donghak, which suggests so called a world of "Mu-Wui-Yi-Wha" to which humans adjust to reach virtue.

Those of Kim Ji-ha's study has such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Kim Ji-ha raises the status of poetry into a matter of life, that is, "healing of being", beyond just a matter of "art" or "technique."

Second, he advances a matter of healing from the dimension of

perception of the elemental, local and analytical to that of insight into the fundamental logic of the universe, extending and intensifying the latter.

Third, as a way of overcoming the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in general of the modern in terms of its view of the world and the reality itself, he has attempted to research into ways of healing, employing ideas from the Oriental, particularly from the classics and ancients focused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His attitudes, however, are not exclusive nor nationalistic.

Fourth, as to the matter of healing of being and life, he does not claim any simplistic view of the world cycling or passive view of future but only presents a view of world of becoming and thereby its evolving creatively, qualitatively and expansively.

Fifth, he is concerned with a more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ecological movement of life called healing, not with a kind of limited ones involved in environmental campaigns of antipollution and conservation of nature.

Sixth, the way of healing that he promotes dreaming of the newborn human being, civilization, society and earth, remains to be found in terms of its application and practice in the context of the actual reality. However, as a form of grand narratives, it is a principal thought and view of value, opening a window into the post-modern era of the 21st century.

Not a little is expected from which direction Kim Ji-ha's ongoing research into healing will move in and be developed further from now onward.

Key Words : Yin and Yang, healing, homeostasis, spiritual view, ecology